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자료는 이상 사회에 대한 것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상 사회의 의의

- 현실 개혁에 필요한 기준과 목표 제공 ㉠
- 사회 발전과 진보의 원동력으로 작용 ㉡

(2) 이상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장

- 공자: 큰 도(道)가 행해지고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대동 사회 ㉢
- 플라톤: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한 철인(哲人) 통치 국가 ㉣
- 노자: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으며 문명의 발달이 없는 소박한 사회 ㉤

- ① ㉠ ② ㉡ ③ ㉢ ④ ㉣ ⑤ ㉤

2.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총명함과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백배나 되고, 인의(仁義)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와 자(慈)를 회복하며, 기교와 이로움의 추구를 버리면 도적이 없게 된다.

을: 덕으로써 인(仁)을 행하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진심으로 복종한다.

- ① 법과 제도가 사회 안정의 기본 조건임을 부정하고 있다.
- ② 규범을 통해 백성의 본성을 교화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③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폭군을 제거하는 일이 정당한 일임을 부정하고 있다.
- ④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야 이상적인 정치가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해주어야만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이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함으로 고정할 수 없는 것이 기(器)이다. 진실로 백성에 이로운 것이라면,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행할 수 있다.

을: 천지도수(天地度數)를 뜯어고치고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써 백성을 변화시켜 세상을 고쳐야 한다.

병: 서학(西學)은 말에 논리가 없고 글에 옳고 그림이 없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이 땅에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 ① 갑은 서구의 과학 기술과 제도의 수용을 반대한다.
- ② 을은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지향한다.
- ③ 병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서양 문물의 배척을 주장한다.
- ④ 을, 병은 현세에서의 이상 사회 실현을 지향한다.
- ⑤ 갑, 을, 병은 국난 극복을 위해 유·불·도의 합일을 추구한다.

4. 갑,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주자는 사단(四端)은 이(理)의 발이고, 칠정(七情)은 기(氣)의 발이라고 하였다. 대개 사단은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의 발이라 한 것은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다.

을: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까닭에 마치 하나의 사물인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기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는 무형(無形)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며,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이다.

- ① 칠정은 기가 발한 감정인가?
- ② 사단과 칠정의 원천은 각기 다른가?
- ③ 사단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인가?
- ④ 사덕은 인간의 감정으로 드러나는가?
- 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가?

5.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쫓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게 되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한다.</p> <p>을: 순임금이 인(仁)과 의(義)를 내걸어서 천하의 인심을 어지럽힌 이후로 천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인과 의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은 인과 의로 그들의 본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① A: 예는 인위적 규범으로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 ② A: 예를 통해 타고난 도덕성을 잘 보존해야 한다.
- ③ B: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 ④ C: 예악으로 욕구를 극복할 때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 ⑤ C: 인의를 멀리하고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6.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감각적 경험보다는 이성적 사유가 더 중요하다.
- ② 절제를 정확히 아는 자는 절제 있게 행동하게 된다.
- ③ 실천 의지의 나약함은 덕에 대한 지식으로 극복된다.
- ④ 인격과 지혜를 겸비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 ⑤ 덕 있는 행위를 꾸준히 반복해야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일도 아니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공허한 추측들을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삶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 진정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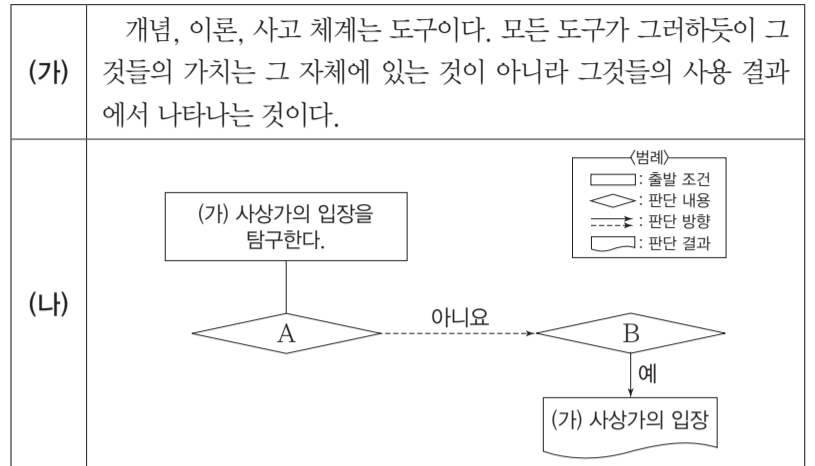
- ① 갑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본다.
- ② 갑은 이성적 사고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계산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의무를 따르는 행위를 중시한다.
- ⑤ 갑, 을은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돌리도록 하자.
(나)	

- 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 ②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 ③ 정념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켜 부동심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 ④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⑤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작은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9.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도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가?
- ② A: 경험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가?
- ③ B: 영원불변의 궁극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 ④ B: 도덕적 진리는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 ⑤ B: 지식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10.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나)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는 민중 스스로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는 혁명 속에서 전 세계를 얻을 것이다.

- ① 계급 없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래하는가?
- ② 생산 수단 전부를 사회가 소유해야 하는가?
- ③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사회를 개혁해야 하는가?
- ④ 평등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정치권력을 철폐해야 하는가?
- ⑤ 자유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가?

11.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로 가득찬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일정한 가치 체계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간혹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행위하여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 ① 상징체계를 사용하여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② 삶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놀이를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생존과 삶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만을 행하는 존재이다.
- ④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 ⑤ 정념에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이다.

12. 다음 사상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밝지 못하며, 탐욕을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거기서 해탈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없느니라.

- ①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 무명(無明)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② 자아의식을 확립해야 본연의 성(性)을 회복할 수 있는가?
- ③ 인간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태어나는가?
- ④ 인의(仁義)의 도덕을 구현한 성인(聖人)이 이상적 인간인가?
- ⑤ 존비친소(尊卑親疎)의 분별력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말 거칠구나, 유(由)야. 군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형평을 잃고, 형벌이 형평을 잃으면 백성들이 몸을 의탁할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군자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말하고, 말을 한 때에는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하는 말에 구차한 것이 없다.

- ①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 ②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예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 ③ 정치의 일차적인 과제는 명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 ④ 형법에 의한 통치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 ⑤ 존비친소와 시비선악의 구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1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격물(格物)의 '격'이란 '이른다[至]'는 것이다. 격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窮究)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p> <p>을: 격물(格物)의 '격'이란 '바르게 한다[正]'는 것이다. 의지[意]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일이 물(物)이고 이를 바르게 하는 것이 격(格)이다.</p>
(나)	

- ① A: 참된 앎을 얻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야 한다.
- ② A: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③ B: 선후를 논한다면 행(行)보다 지(知)가 우선한다.
- ④ C: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치이다.
- ⑤ C: 사욕(私慾)을 없애서 천리(天理)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호(嗜好)가 있다. 하나는 영지(靈知)의 기호이고, 다른 하나는 형구(形軀)의 기호이다. 영지의 기호는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고, 형구의 기호는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 ①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이다.
- ② 성(性)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이치이다.
- ③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④ 우주의 기(氣)와 인간의 기는 동일하여 구분되지 않는다.
- ⑤ 인의예지의 덕은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다.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에만 '✓' 표시를 한 학생은?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죄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면죄부 없이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성서에 있는가?	✓			✓	✓
교회의 장엄한 예식보다도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가?	✓	✓		✓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	✓	✓
신의 은총이 없이 사제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유용성이 도덕감(道德感)의 원천이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우리의 시인과 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덕의 기원을 상당 부분 설명해 주는 원리이다. ... (중략) ...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진다. 어떤 행위나 인격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인(是認)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좋은 것으로, 그 반대라면 나쁜 것으로 규정된다.

- 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감각적 지각에 불과한가?
- ② 선악은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③ 감정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 ④ 이성보다 감정이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가?
- 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가?

18.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독단을 휘둘렀다.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재미처럼 오로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하고,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재미처럼 자신의 속을 풀어 내서 집을 짓는다. 그러나 꿀벌은 중용을 취한다. 즉 들에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가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학문의 임무는 이와 비슷하다. 참된 학문은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을: 한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계산해 보라.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관련자 전체 또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고통 쪽이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나쁜 성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은 삼단 논법식 연역 추리 방법을 거부하고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 ② 을은 실제 상황에서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진리 인식의 근거로 경험보다 이성을 중시하였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 ⑤ 갑, 을은 모두 자연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1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가 다루려는 대상에 관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나 우리 자신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하고 명증적으로 직관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연역되는 것만을 고찰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사상가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 기초해 있고, 궁극적으로 경험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 사상가는 ㉠

—<보 기>—

ㄱ.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경험을 통해서만 자명한 진리를 연역해낼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ㄷ.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명백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ㄹ. 확실한 지식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우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보 기>—

ㄱ.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선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ㄴ.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ㄷ. 개인의 행복은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ㄹ. 인간은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